

상담사의 수퍼비전 경험에서 드러난
수퍼비전의 지속 요인*
**The Sustainability Factors of Supervision Revealed
by the Supervisees' Supervision Experience**

박 서 희**
Seohee Park

<Abstract>

In this qualitative research study, we explored the sustainability factors of counselors who received continuous counseling after qualification. We conducted individual, face-to face interviews with four counselors for two weeks between May and June 2018. The second and third data collection phases involved follow-up by phone or email where necessary. We applied topic analysis to our data and in the process arrived at four perspectives on the sustainability factors of supervision. The four themes were 'Being helpful,' 'Being a good learning experience,' 'Recognizing the need for a third party,' and 'Discovering possibilities.' 'Being helpful' is the factor of continuing the supervision and involves 'Being psychologically stable,' 'Knowing one's limits' and 'Deepening the understanding of clients.' We classified 'Being a good learning experience' as 'Reflecting on oneself,' 'Learning through participation and observation' and 'Understanding human beings.' We defined 'Recognizing the need for a third party' as the ability of counselors to see their blind spots. The fourth persistent factor is 'Discovering possibilities,' and applies equally to both the counselor and the client as they discover their potential.

Keywords : counselor, supervisor, supervisee, supervision, sustainable factors

* 2018년 6월에 쓴 소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남양주 아동발달센터 심리상담사 (2hworld@hanmail.net)

I. 서 론

제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삶은 윤택해지고 최첨단의 기기를 맘껏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이다. 심지어 유아들의 손에서 스마트기기를 발견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되고 있다. 편리하고 풍족한 사회에 아무리 경제적으로 궁핍하다고 할지라도 때를 거르는 사람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기도 하다. 오히려 다이어트로 식사를 조절하기 위함이 더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정신의 빈곤함은 늘고 있는 것일까? 인터넷 발달 등 급속한 변화 속에 겪게 되는 여러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정신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전문적 상담의 중요성이 부각(한재희, 2006; 장유진, 2015; 이형국, 2017)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기준으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전문 상담사들의 수는 이형국(2017)에 따르면 1급과 2급을 포함해서 13,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성장 측면에서는 전문직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명대정, 2000; 장유진, 2015; 박애선, 황미구, 2008). 이어서 상담의 전문성 문제나 상담 전문성에 대한 강화 관련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조은숙, 최연실, 김민경, 2015; 허재경, 김지현, 2009).

상담의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레 상담 슈퍼비전의 중요성도 부각됨은 당연한 순서가 될 것이다. 슈퍼비전의 중요성(방기연, 2009; 소수연, 장성숙, 2014) 또한 간과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은 상담계통에 있는 종사자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듯 슈퍼비전의 필요성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상담사의 발달을 위해서도 슈퍼비전은 계속 요구되고 있으며 실제, 여러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더불어 내담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슈퍼비전은 필요(Bernard & Goodyear, 2008; Goodyear, 2014; 손은정, 2010)한 것이다. 이렇듯 슈퍼비전은 상담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과정(Grant & Schofield, 2007; Helen H. & Judy M. 2009)이다. 슈퍼비전을 통해서 상담사는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으며 슈퍼비전으로 전문적인 상담사로 거듭나게 되고 상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상담사의 전문성 및 개인적 발달을 촉진시키며 상담의 효율성 또한 증진시킬 수 있게 된다(Ladany & Bradley, 2013; Rabinowitz, 2008).

방기연(2006)은 슈퍼비전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자격증을 받는 조건으로 슈퍼비전이 지속이 되는 인과적 조건으로 보았다. 그리고 상담사가 슈퍼바이저를 선택하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상하 관계는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계인 맥락적인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유능한 상담사로 성장하기 위하여 학습경험이 필요하며 학습경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같은 슈퍼바이저로부터 최소한 1년 이상 지속적인 만남이 우선되어야 도움이 되고 사례 개념화 등을 통하여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상담사들은 슈퍼바이저의 태도 인식에 있어서 지지적인 태도의 슈퍼바이저에게 자신

의 부족함을 인식하게 되고 학습 의욕이 더 생긴다고 보았다.

Goodyear(2014)은 상담사가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슈퍼비전 받을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상담사의 능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상담사 자격취득 이후에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상담사의 능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상담사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피드백을 더 이상 구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자기 인식을 하는 경우를 지적하였다. 또 상담사로서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측면들, 편견과 생활 사건들로 겪게 되는 기타 위기 등이 있을 때에도 메타 인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담사가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슈퍼비전을 받아 메타인지(Metacompetence)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Grant J와 Schofield M(2007) 연구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슈퍼비전은 비교적 발달되어있고 슈퍼비전도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상담사들이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집단 슈퍼비전보다는 개별 슈퍼비전을 받고 있으며 슈퍼비전을 받는 비율이 높으면서도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영국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보고이다. 반성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며 효율성이 증가하고 지지받음 등이 주된 이유이기도 하였다. 슈퍼비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슈퍼비전이 자격증을 위한 인과적인 조건이 되거나 자격취득만을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방기연, 2006). 또한, 상담사들이 여러 슈퍼바이저들에게 단기적 혹은 일회적인 방식(이소연 외, 20014)으로 슈퍼비전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슈퍼비전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상담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는 어떠한지 탐색해보는 것이다. 실제 상담사들이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담 슈퍼비전을 받고 있다면 그 지속 요인들은 무엇인지 탐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상담사의 슈퍼비전 경험에서 드러난 슈퍼비전 경험과 계속되고 있는 슈퍼비전의 지속 요인을 살펴볼 것이다.

II. 연구 방법 및 절차

조용환(2011)에 따르면 양적 연구 이외에도 법칙, 이론, 도식 등을 해체 없이 기존의 관례 등으로 덩석 받아들이는 모든 연구가 문적인 연구¹⁾라 일컫고 있다. 연구자는 본 연구가 질

1) 양적 연구가 문적 연구의 한 가지 전형적인 형태라는 사실에 주목하면 된다. 바꾸어 말하면 양적 연구라 불리지 않으면서도 문적인 연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양적 연구는 만물의 실재와 그것을 지배하는 법칙이 인간의 의식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므로 정교한 비교와 측정을 통해서 그 '진리'를 입증하거나 반증할 수 있다고 보는 실증주의적 인식론에 바탕을 둔 연구이다. 양적 연구에서 자료는 표준화된 수와 양으로 감환되어 통계적 처리의 대상이 된다. 그 점에서 양적

적 연구임을 염두에 두고 이 연구에 임하고자 하였고 질적 연구의 특성 중 하나로 연구자의 주관성 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가급적이면 왜곡되지 않게 진실성 있게 수행하려고 하였다.

이 연구는 4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사의 수퍼비전 경험에서 드러난 상담 수퍼비전의 지속 요인’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모두 50대에 속하는 여성 상담사들이며 1명만을 제외하고 10년에서 15년 상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경기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담사들이다. 참여자들은 상담할 때 주로 질충적인 방식을 취한다고 하였으나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상담 이론은 정신 역동이었다. 면담은 참여자들 각자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연구자가 직접 일터로 찾아가 상담실에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면담 일정은 2018년 5월 마지막 한 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2주 동안 진행되었다. 이후에 추가 자료는 전화나 메일 등을 통하여 수집하였는데 Seidman(2015)을 참고하여 자료수집 3번을 실시하였다. 질문의 방식에 있어서 자유롭게 참여자들의 개별 경험을 탐색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는데 이는 연구 목적이나 의도가 덜 노출되고자 함이고 참여자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자 함이다. 이후에는 상담 수퍼비전의 지속 요인에 대한 주제로 초점화하여 질문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연구 진행에 있어 연구자는 참여자들 4명 모두에게 연구 동의를 받고 면담을 시작하였다. 초기에 다른 연구자 1인도 참석하려 하였으나 참여자들 중 1명은 다른 연구자의 참석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동의를 하지 않았다. 참여자의 요청대로 연구자만이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 과정 중에 언급된 수퍼바이저 및 내담자의 개인정보 등 식별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삭제하였다. 동시에 다른 연구자 1인은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면서 결국 연구에 동참하지 못했음을 밝힌다.

주제 분석이라는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주제 분석은 Braun와 Clarke(2006)의 방법을 참고하였다. 일단, 면담 내용을 녹취하였으며 녹취한 자료와 더불어 녹음한 자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듣고자 하였다. 이는 당시 면담 때 참여자들의 반응들을 더 생생하게 다시 되살리는 차원과 이전에 놓쳤던 반응들을 새롭게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의 상담 수퍼비전의 지속 요인을 분석하고자 코딩 과정을 다각적으로 접근해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해체와 분류가 반복되었다.

연구는 분명히 질적이지 않은 연구이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직관하려는, 사태를 ‘그 자체로’ 이해하려는 태도와 노력이 없는 연구는 모두가 문적인 연구이다. 근원적이고 발생적인 존재 물음을 하지 않고 존재자의 질서, 주어진 세계와 문화의 질서에 안주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연구는 문적인 연구이다. 이렇게 문적인 연구와 질적인 연구를 대비함으로써 우리는 질적 연구가 어떤 성격의 연구인지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참고: 조용환, 2011: 16-17.

표 1. 참여자 정보

참여자	나이/성별	학력	상담경력	슈퍼비전 기간	개인분석기간	지역
1	49/여	석사과정	2년	1년	5년	경기도
2	48/여	석사졸업	13년	10년	4년	경기도
3	55/여	박사수료	15년	15년	4년	경기도
4	56/여	박사졸업	12년	12년	2년 6개월	경기도

Ⅲ. 연구결과 : 슈퍼비전 경험에서 드러난 상담 슈퍼비전의 지속 요인

‘상담사의 슈퍼비전 경험에서 드러나는 상담 슈퍼비전의 지속 요인’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는 4개의 대주제, 8개의 중주제와 16개의 소주제로 도출되었다. ‘도움이 됨’, ‘좋은 공부 가 됨’, ‘제3자 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 ‘가능성을 발견하게 됨’이라는 4개의 대주제이며 각각의 대주제별로 중주제와 소주제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표 2와 같다.

이는 참여자들에게서 도출된 상담 슈퍼비전의 지속 요인이다. 4명의 상담사인 참여자들에게서 면담을 통해 도출된 결과이며 가급적 참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왜곡 없이 그대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주제를 도출할 때 4명의 참여자들이 보는 슈퍼비전의 지속 요인에는 공통점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는 하였지만, 결과로 구성할 때는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분류하였다.

1. ‘도움이 됨’

1) ‘심리적 안정이 됨’

참여자들은 슈퍼비전의 지속 요인 중 하나를 심리적 안정에 두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모르거나 어려운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 특히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누군가 나눌 상대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1차적인 심리적 의지가 되는 것으로 보였다. 참여자들은 슈퍼비전을 하러 갈 때, 마치 든든한 지원군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힘이 되었고 위로와 더불어 상당한 지지를 받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항상 불안해요. 슈퍼비전을 안 받고 하면 불안감이 있어요. 의논 상대가 있으면

표 2. 참여자의 관점에서 코딩

참여자 목소리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잘 모르거나 버거울 때 불안감 감소인 거 같아요. 불안감 감소에 도움이 돼요.”	‘불안이 감소 됨’	‘심리적 안정이 됨’	
“의는 상대가 있으면 편하죠. 책임을 나누면 위로가 되고 나눌 상대가 있다는 게.”	‘위로가 됨’		
“사람 만나는 거에 자신 없어. 난 죽을 때까지 질문가 아니라고 생각해”	‘한계를 느낌’	‘한계를 알게 됨’	‘도움이 됨’
“내담자의 이해, 인간의 이해라고 할 수 있죠. 그 내담자 이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내담자를 이해하게 됨’	‘내담자 이해가 깊어짐’	
“인간을 이해하는 데 지평을 넓혀서”	‘지평을 넓히게 됨’		
“수퍼비전을 받으려면 녹취 풀어야 하므로. 녹취를 풀면서 얻는 게 많았어요. 여지없이 내 목소리 듣게 되고”	‘빠져리게 느껴짐’	‘자기를 반추하게 됨’	
“상담자도 다뤄주고 내담자도 다뤄주는 거 보니 멋있었어요.”	‘각인될 정도로 인상적임’		
“다 가진 사람은 만나기 쉽지 않으니 내게 필요한 부분만 얻어가는 거예요”	‘저마다의 강점을 취함’	‘참여와 관찰을 통해 배우게 됨’	‘좋은 공부가 됨’
“동료 슈퍼바이저들이 발표하고 나는 옆에서 하는 것만 봐도”	‘보고 들으면서 배우게 됨’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게 뭔지 배웠어요. 있는 그대로 보는 방법을 배웠어요.”	‘있는 그대로 보는 방법을 배움’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일으켰던 문제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 내 힘으로는 그렇지만, 인간 본연의 절절한 그 사람의 모습과 마음을 이해하는 게”	‘깊이 있는 문제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됨’	‘인간을 이해하게 됨’	
“내가 못 봤던 사각지대를 봐줄 수도 있죠. 팀을 짜서 하기도 하고”	‘사각지대를 보게 됨’		
“객관화해서 보고 제3자의 시선이 필요한 거 지”	‘객관화해서 볼 수 있게 됨’	‘못 보았던 것을 볼 수 있게 됨’	‘제3자 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
“수퍼비전을 통해 자신의 모습도 동시에 보죠. 나를 비춰주는 거울”	‘거울같이 작용함을 발견하게 됨’		
“질문할 때 비난하지 않고 왜 그런 거 같아요?라며 부드럽게 되돌려 줘. 또 질문 던져주고 힘 실어주고 할 수 있다고 하고 차근차근 알려주는.”	‘다시 생각하게 해줌’	‘성장하도록 촉진 받게 됨’	‘가능성을 발견하게 됨’
“샘물과 같은, 온천물과 같은 물이 내 안에서 졸졸 흐르는데 내가 파지 못해서, 내가 드러내지 못해서”	‘막힌 부분이 뚫어짐’		

편하죠. 경력이 있고 하면... 경험 많은 거 무시 못하는 거 같아요.

책임을 나누면 위로가 되죠. 나눌 상대가 있다는 게(참여자 1).”

“내가 모를 때 가면 목표나 치료 방향 듣게 되고 일단 시원한 거 있어요. 잘 모르면 일단 도움 많이 되죠. 명확해지니 도움 되고 자기에 대해서도 얘기 하잖아요. 내 불안 감소인 거 같아요. 치료가 잘될까? 싶기도 하고 이것도 도움을 받고 지지도 해주니까. 맘 편해지고 안심이 돼요. 지지를 받고 힘도 받고 해요. 내담자와 감정적으로도 올라오는 것도 보게 되고 증상 심리 등 잘 못 보는 심층 심리를 더 잘 보게 되는 게 도움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의지하는 거죠. 슈퍼비전을 할 때 의지하러 가요(참여자 2).”

참여자들은 슈퍼비전을 받는다는 자체에서부터 일단 안심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었고 상담 사례에 대한 불투명한 문제들이 해소되는 점에서는 더 직접적인 도움을 받게 되었다. 내담자의 문제와 함께 상담사 자신에 대한 역전이 감정 등을 인식하게 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2) ‘한계를 알게 됨’

참여자들은 상담사로의 한계가 여러 가지 요인에서 올 수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가령, 외부적 요인 혹은 심리 내적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참여자 3의 경우도 개인적인 한계를 언급해 주고 있었다.

“최근 제가 너무 많은 사례를 다루다 보니 사례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한계를 느꼈어요.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데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해서 슈퍼비전과 같이 분석도 다시 받으려고 해요(참여자 3).”

Bernard와 Goodyear(2008)도 이 역시 슈퍼비전의 부가적인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소진을 피하기 위해서도 슈퍼비전이 필요하며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참여자 3의 경우도 상담 경력이 15년이며 슈퍼비전 또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지만, 상담가로서의 책임을 느끼며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여전히 슈퍼비전과 개인분석의 필요성과 지속성을 언급하였다.

3) ‘내담자의 이해가 깊어짐’

참여자 3은 15년이라는 짧지 않은 상담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은 두려운 일이

다. 죽을 때까지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있었다. 능력이 적을수록 과대평가하는 경향(Goodyear, 2014)이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참여자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었다. 상담사로서의 일을 하면서 상담을 해준다는 것이 뭐지? 에 대한 고민도 엿볼 수 있게 된다. 참여자 4는 그간 수퍼비전을 받아왔고 또 계속하게 되는 요인이 내담자 이해와 사람에 대한 이해로 연결시키고 있었다.

“상담사로 아이덴티티 잘 세워가고... (잠시 침묵) 두려운 일이지. 수퍼비전은 내담자를 객관화해서 보고 자신에 대한 분석, 강점과 약점, 어떻게 관계를 맺고 한계점도 알아야 하잖아요. 수퍼비전 너무 필요하죠! 사람을 만나는 것에 자신이 없어. 난 죽을 때까지 전문가 아니라고 생각해(참여자 3).”

“내담자 인간의 이해잖아요. 인간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굉장히 큰 거 뭐 수퍼비전이 좋았던 나했던 그 자체에 대해서 많이 깊이 있게 바라보고 그리고 나에게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스스로 인정할 때도 있고 다만, 환경상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 나에게도 죄성이라든가 나에게 대한 죄의식이라든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으로서의 그 모습이 있는데 내가 조금 더 내가 공부를 한 것일 뿐이고 한 인간으로 같은 동등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수퍼비전을 함으로써 (중략) 인간을 이해하는데 지평을 넓혀서 영적인 것과 관련.. 인간은 영적 존재니까 인간 이해에 있어서 영성을 가지고 내담자를 바라보는 이해도... 존재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에 기초해서 상담과정에서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고 보는 거죠(참여자 4).”

참여자 4의 경우는 인간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좀 더 나아가 초월적인 측면과도 연결시키고 있었다. 수퍼비전을 할 때 내담자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해결하기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폭넓게 내담자를 이해하는 영성과의 연결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2. '좋은 공부가 됨'

참여자들은 상담을 하는 과정이나 수퍼비전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도 공부가 된다고 하였다. 수퍼비전이 이루어지는 장에서만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닌 수퍼비전을 준비하는 준비 단계부터 이미 공부는 시작되었다.

1) '자기를 반추하게 됨'

참여자 1은 수퍼비전에서 개인적으로 좋은 경험이든 좋지 않은 경험이든 충분히 좋은 공

부였다. 때때로 슈퍼비전 후에 감정적으로 힘겨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이 역시 좋은 공부로 인식하고 있었다. 가령, 상담을 하는 장이나 슈퍼비전을 하는 장에서도 매 순간 긴장을 놓지 않고 있는 참여자의 태도를 볼 수 있었는데 상담사-내담자, 슈퍼바이저-수퍼바이저를 쌍방향으로 동시에 보는 연습을 평상시에도 하고 있었음을 찾아볼 수 있었다. 손은정 외(2003)는 상담사의 전문성 발달을 위해서는 성찰의 중요성과 성찰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는데 참여자 1은 온몸을 활용하여 상담과 슈퍼비전에 임하는 자세를 밝혀 주고 있었다.

“녹취록을 풀면서 이때 이런 감정이었구나! 하고 내담자가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갔구나.... 여기서 제 자신을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ㅎㅎ 내가 너무 말이 많았구나. 내가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지를 많이.. 객관적으로 보고 이것은 뭐 변명의 여지없이 내 목소리를 통해서 듣잖아요. 이것이 제일 가슴 아팠죠. 가슴이 아픈 만큼 변화가. 의식적으로라도 더 집중해야한다는 것... (중략)...얼마나 많은 생각을 통해서 많은 것을 놓쳤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녹취를 풀면서 행간이 보이는 거예요. 잠깐의 침묵. 뭔가 말하려다가 만 거. 아~ 그거를 다 놓친 거. 그때는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녹취록을 풀면서 그게 보이게 돼요. (웃으며) 슈퍼비전 받아야 하니까 그거 풀어야 하잖아요. 호호호...(중략)... 그래서 나는 공부하는 순간이 되더라고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이 부분이 좋더라고요. 나는 매 순간 상담 하면서 나도 바라보게 되는데 눈이 풀리는 지. 힘이 들어갔나? 잘난 척을 하나 엄마처럼 구나! 선생님처럼구나! 하고 매 순간 체크하고 쌍방향을 동시에 같이 보니까 상담하고 나니 나가 떨어져요. 슈퍼비전을 받을 때 그 순간도 저한테는 그냥 공부였어요. 내가 슈퍼비전을 통해서 좋은 지적질을 당한다는 (웃음). 내가 놓친 것은 이미 거기서 빠져리게 느꼈구요(참여자 1).”

“슈퍼비전이라는 게 내가 상담을 해서 받는 거잖아요. 내담자에 대한 이해라든가 사례 개념화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사례 개념화가 너무 중요한 게 내가 사례 개념화를 깊이 있게 하면 할수록 그 내담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례 개념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사례보고서는 내 얼굴이잖아요. 사례보고서를 내가 그 내용을 읽는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긴장도 하고, 갈수록 조금 나에 대해서 예전만큼은 뻗심이 생겼다고 할까? 갈수록. 그냥 받아들였던 거 같아요. 음. 그냥 어 그렇구나. 그리고 오히려 그런 면이 내가 있죠. 하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 내가 고백하는 인정하고 들어가는(참여자 4).”

슈퍼비전은 참여자 4에게 사례 개념화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었다. 사례

개념화를 하면 할수록 동시에 내담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례 개념화는 내담자를 볼 때 인간의 모습 특히 마음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준다고 여겨 좋은 공부의 측면이 되었다. 사례개념화는 내 얼굴과도 같아서 소홀히 준비할 수 없어 늘 긴장을 유발시키기도 하지만 갈수록 뱃심도 생기며 수용력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 “참여와 관찰을 통해 배우게 됨”

참여자 1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퍼비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좋은 공부가 된다고 밝히면서 수퍼바이저인 자신의 모습과 동시에 수퍼바이저를 관찰하고 있는 면도 보고하였다. 가령, 수시로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판단 없이 그대로 보는 연습을 통해 공부가 되었고 이는 참여자가 나뭇 공을 들여 연습 끝에 얻어진 결과라고 하였다.

“수퍼비전을 통해서 그 분이 평소에 커피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같이 얘기할 때와 갑자기 시작~ 하면서 딱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얼굴부터가 달라져요. 표정도 달라지고 그런 게 보였어요. 그래서 왜 평소에 우리를 대할 때와 할 때 왜 그렇게 다르지? 그냥 시니컬하게 시니컬한 상태로 내담자를 만날 수 없나? 아니면 수퍼비전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사람은 수시로 변하나? 아~ 갑자기 목소리 톤도 달라져요. 목소리도 달라지고 눈은 약간 반짝 반짝 대개 이성적인 눈인데 표정은 한없는 자애로움 있잖아요. 보살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많이 생각해보게 되고 그게 필요불가결한 건가? 그게 주는 장·단점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도 그러나? 나도 내담자를 만날 때 평소 내 얼굴이 아니라 갑자기 모든 것을 다 감싸줄 게 다 얘기해봐. 이런 하염없는 눈길을 계속 보내면서 그러나? (전략) 내가 생각하지 않고. 수시로 판단이 들어가잖아요. 계속 순간순간 매~순간 판단이 들어가는데 정말 판단 없이 그대로 사물을 멀~건히 바라보는 것. 아무 생각 없이 만약 자연 속에 있을 때 나무를 볼 때 나무를 그냥 보지 나무를 판단하지 않잖아요. 나무가 구부러졌네. 저건 몇 년생이네. 이런 생각 안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게 되는 제일 의식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게 되었어요. 판단하지 않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통해서 많은 것을 놓쳤는지를 알게 되었어요(참여자 1).”

“전문가적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모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어쩔 땐 나도 모르게 똑같이 하고 있기도 해요. (중략) 아~ 내담자에게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알게 되기도 해요. (중략) 몰랐던 부분이 명확해지기도 하고 도움이 되니까 계속하게 되고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참여자 2).”

참여자들은 슈퍼비전의 참여·관찰을 통해서 모델링(허재경, 김지현, 2009)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참여자들이 굳이 발표를 하지 않더라도 동료 슈퍼바이저로 슈퍼비전에 참석할 때도 동료들의 사례발표로 인해 공부가 되었고 신선한 자극이 되고 있었다. 참여자 2도 슈퍼바이저를 좋은 모델링으로 삼고 있었으며 참여자 자신도 실제 상담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었다. 참여자 3의 경우는 초보 상담사 시절에 참석한 슈퍼비전에서의 슈퍼바이저는 당시 신선한 충격이기도 했지만 멋진 모습으로 각인되어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을 찾아볼 수 있었다. 참여자 4도 슈퍼비전장에서 슈퍼바이저와의 관계가 내담자와의 관계 안에서 재현될 수 있음을 언급해 주었다.

3) ‘인간을 이해하게 됨’

상담이 사람을 대하는 일이라 인간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참여자들의 생각을 많이 엿볼 수 있었다. 참여자 3은 상담을 하면 할수록 인간에 대한 이해를 모르겠다면서 지속적인 공부로 실력으로 연결이 된다고 언급해 주었는데 이는 상담사로서 전문성을 위한 공부로 당연하며 정당한 대가로 지켜야 하는 양심이자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하였다. 슈퍼비전이 보이지 않는 내면에 관한 공부이기도 하여 더욱 지속성과 연결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지속적인 공부가 습관이 되어 이제는 놀이가 되고 있었다.

“전문성을 위한 공부라 당연한 거예요. 상담사의 길은 계속 공부해야 한다고 봐요. 나를 위해서도 내담자를 위해서도 공부하는 기본 예의라고 봅니다. 사회적 자리를 봐서도 필요해요. 실력밖에 없어요. 돈도 벌어야 하는데 실력이 돈이고 이게 양심선언이지 뭐예요...(중략)... 슈퍼비전은 꾸준히 해오죠.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면 할수록 인간에 대한 이해 모르겠다야~ 상담사로 양심이죠. 공부가 곧 실력입니다. 심적인 것과 연관해서 마음공부를 하는 거죠. 보여지지 않는 부분을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놀이 삼아 공부하고 공부가 이제 놀이가 되고 있어요(참여자 3).”

“사람에 그 사람 자체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일으켰던 문제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 내 힘으로는 그렇지만, 인간 본연의 절절한 그 사람의 모습을 마음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될 때가 있죠 (참여자 4).”

“같이 공부하니깐 내가 주체가 되어 공부하는 가운데 잠시 잠시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가는 거죠.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슈퍼비전도 결국 하나만 가져가는 거지요. 이 사람에겐 이거 저 사람에겐 저거 그래서 조합은 내가 하는 거

쥬. 각자가 다들 좋은 강점이 있으니까요. 좋은 자극이 돼요... 상담은 인생이라고 봐요. 삶의 부분에 있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요. 과정이죠. 공부하는 과정에 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공부란 학습이 아니라 삶을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고 삶을 이해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참여자 3).”

참여자 3에게 놀이가 된 공부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하는 강요된 공부라기보다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공부였으며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부의 수퍼비전이기도 하였다. 이는 수퍼바이저가 가진 좋은 강점을 선택적으로 취하며 하는 공부이기도 하였고 이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이기도 하였다. 상담이 사람과 삶을 빼놓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상담을 인생이라고 보는 것은 그만큼 상담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제3자 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

수퍼비전은 참여자들이 보기 어려운 측면을 보게 해주는 데 있어서 수퍼비전을 지속하게 해주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관점에서 벗어난 그늘진 측면을 봐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으며 질문과 야단을 맞아가면서도 제3자의 시선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해주었고 결국 도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 '못 보았던 것을 볼 수 있게 됨'

참여자들은 수퍼비전을 하는 동안 힘들었던 경험들도 보고하였지만 수퍼비전을 통해 참여자 자신의 모습을 더 잘 볼 수 있게 됨을 살필 수 있었다. 참여자3은 수퍼비전을 받지 않고 상담을 지속했을 때의 위험을 지적하기도 하였고 참여자4는 내가 볼 수 없었던 사각지대를 보게 해주는 수퍼비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동료 피드백이 저는 더 괴로웠어요. 2주에 한 번씩 했는데 수퍼바이저 1명과 동료 3명이 동시에 공격하는 느낌을 받아서 많이 힘들더라고요. 비판을 받아서 반성도 많이 했죠...(중략)... 수퍼비전을 받을 때 나는 널 사랑해. 레이저빔처럼 했어요. ㅎㅎ 끝나고는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수퍼비전을 통해 자신의 모습도 보죠. 나를 비춰주는 거울(참여자 1).”

“객관화해서 보고 제3자의 시선이 필요한 거죠. 위험한 도구가 되면 안 되니까요

(참여자 3).”

“내가 못 봤던 사각지대를 봐줄 수도 있죠. 슈퍼비전이 꼭 필요하다고 보죠. 꼭 필요하죠. 100% 필요하다고 봐요. 상담을 한다면.. 따끔하게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도 음 굉장히 당신에게 정말로 이런 좋은 면이 있지 않느냐를 스스로 드러내게끔 할 때 해주는 질문과 그리고 또한 그분의 느낌을 얘기해주죠. 그랬을 때 굉장히 내 스스로 아~ 맞아 내가 그런 게 있지 하고 내 스스로 좀 성찰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참여자 4).”

제3자 시선 중에는 동료의 시선도 포함이 되는데 늘 따뜻하고 지지적인 경험만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었다. 참여자들은 때로는 날카롭게 돌아오는 피드백 때문에 많이 힘들었음을 보고하였다. 슈퍼비전을 받을 때 따뜻한 경험도 했지만 슈퍼비전이 끝나고 슈퍼비전이 더 지속이 되지 않았을 때는 다시 예전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험도 한다고 언급해 주었다. Goodyear(2014)가 상담사의 능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지적하였듯이 참여자들의 표현에서도 위협한 도구가 되지 않거나 사각지대를 더 잘 보기 위해서라도 슈퍼비전은 필요한 것임을 살펴볼 수 있었다.

4. '가능성을 발견하게 됨'

참여자들은 슈퍼비전을 통하여 슈퍼바이저로 하여금 생각하게 되었고 내 안의 힘을 끌어내게 됨을 경험하였다고 밝혔다. 때로는 야단을 맞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드럽게 지지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슈퍼비전 경험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스스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을 촉진 받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1) '성장하도록 촉진 받게 됨'

참여자 2의 경우에는 슈퍼비전을 통해서 슈퍼바이저로 하여금 직접적인 지시나 조언 등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드럽게 질문을 되돌려 받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는 슈퍼바이저가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도록 함께하며 돕는 것이기도 하였다. 동시에 참여자 2는 부드러운 질문과는 다르게 비난과 야단으로 따끔하게 훈육을 받게 되는 슈퍼비전 경험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는 슈퍼바이저 개인적인 성향 스타일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으며 비난과 야단은 오히려 참여자들이 견딜만한 힘이 있는 것으로 여겼다. 비난과 야단을 처음 받았을 때나 바로 받은 직후에는 힘겹지만, 나중에는 도움이 된다고도 하였다. 참여자 4의 경우에는 참여자 자신의 내면의 막힌 부분을 터치하듯 건드려주며 뚫어주어 호

르게 해준다고 언급하였다.

“질문할 때 비난하지 않고 왜 그런 거 같아요? 하며 부드럽게 되돌려 주는 또 질문을 던져 줘서 나로 하여금 계속 생각하게 해주죠. 그 힘을 그대로 내게 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나한테 질문을 하는 것은 자기가 갖지 않고 다시 되돌려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 라면서 내가 해라고 내 힘으로 힘을 나한테 주는 거죠. (중략) 힘을 실어주며 할 수 있다고 하며 차근차근 일러주는 거죠. 지지받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선생님이 편하고 좋죠! (호호). 힘을 받는 느낌이 있죠. 아~ 이렇게 힘을 돌려주는구나! 그러면 아~ 내담자에게도 이렇게 하는구나! (중략) 그것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슈퍼비전을 하면서 야단을 맞게 되는 데 하고 나면 힘이 들어요. 하고 나면 감정이 처음에 나를 추스르기가 비판을 받으니까 내가 뭔가 조금 인정을 못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잘못 한 것 같기도 하고 비판적이기는 한데 하고 나면 힘들어지지. 우울해지고 (하하하) 그런 건 있어요. 며칠 지나면 조금 회복되는 며칠 지나 소화시키고 아~ 이런 건 내가 몰랐던 부분인 거죠 (하하하) (후략) (참여자 2).”

“인간 본연의 모습을 상담자 안에 있는 모습을 스스로도 알아내게끔 그게 사실은 내담자와의 상담 관계 안에서 충분히 나올 수, 발휘될 수 있을 때 막힌 구멍을 뚫어주는 슈퍼비전. 그 부분을 터치해주는 슈퍼비전. 물론 상담자를 너무 안다면 그것은 분석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슈퍼비전에서 분석까지 받을 이유는 없지만 내담자와 상담자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뤄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굉장히 따뜻함을 내 안에 있는, 원래는.. 따뜻함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드러나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나의 내면 깊은... 깊이 있는 따뜻함을 쭉~욱 끄집어 내~ 주는 슈퍼비전이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아~~ 내가 따뜻한 부분이 있지. 따뜻한 샘플과 같은 온천물 같은 그런 물이 졸졸졸 흐르는데 내가 파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했던 것 뿐이야를 말하는 것. 이를 알게 해주는 슈퍼비전. 그 슈퍼바이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슈퍼바이저였기 때문에 음 당신에게 정말로 이런 좋은 면이 있지 않냐를 스스로 드러내게끔 할 때 (중략)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상담이라는 게 겉이 아니고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 자체를 이해해주고 나면 그 다음 문제는 그냥 정말 뭐 ~ 내담자 문제를 파악하고 가능성을 봐주는 거지. 그거를 이해하다보면 지금 현재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게 너에게는 지금 그거는 하나의 일부분의 표면이고 너에게 이것이 있으면 너의 미래에 그거를 어떻게 너에게 가능성으로 열릴 지를 같이 함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참여자 4).”

참여자들은 슈퍼비전에서 소크라테스 기법 등의 질문기법(Goodyear & Bernard, 2008)으로 생각을 끌어낼 수 있도록 촉진 받기도 하며 동시에 상담에서 내담자에게도 활용될 수 있음을 깨닫기도 하였다. 즉 성장 가능성을 발견해주는 측면에 있어서 슈퍼바이저인 참여자 뿐만이 아니라 상담 장면에서 있는 내담자 역시 그 힘이 발휘될 수 있다고 나타났다. 문제가 있는 내담자일지라도 표면의 문제가 전부가 아닌 그 너머의 가능성을 보아줄 때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었다. 이는 문제에 가려진 표면만을 볼 것이 아니고 문제가 거둬질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측면에서 함께 해준다는 의미이기도 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슈퍼비전 경험에서 드러난 상담 슈퍼비전의 지속 요인은 4가지 대주제로 도출되었다. 도출된 4가지 대주제는 ‘도움이 됨’, ‘좋은 공부가 됨’, ‘제3자 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됨’이다. ‘도움이 됨’은 슈퍼비전을 지속하게 되는 요인으로 ‘심리적 안정이 됨’, ‘한계를 알게 됨’과 ‘내담자 이해가 깊어짐’으로 분류되었다. ‘좋은 공부가 됨’은 슈퍼비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녹취를 풀고 사례 개념화를 하면서 ‘자기를 반추하게 됨’으로 하게 되는 공부이기도 하였고 ‘참여와 관찰을 통해 배우게 됨’으로 인간의 깊이 있는 문제까지 살펴볼 수 있는 ‘인간을 이해하게 됨’의 공부였다. 상담사들이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제3자 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으로 위험한 도구가 되는 것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거울에 비춰보듯 자신의 사각지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슈퍼비전의 네 번째 지속 요인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됨’인데 이는 상담사나 내담자 모두에게 해당이 될 수 있으며 인간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다는 의미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상담사들이 처음에 슈퍼비전을 받는 목적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시작되었지만, 상담 경력이 쌓이면서 상담사로서 전문성을 위하여나 다른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슈퍼비전으로 지속하는 요인에는 차이가 있었다. 상담사마다 가지는 슈퍼비전의 지속 요인에는 공통된 특성도 있지만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라 상담 경력이 쌓이면서 다른 목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는, 방기연(2006)의 자격증을 위한 지속적인 슈퍼비전의 인과적 조건으로 본 것과 달랐고 단기적이거나 일회적인 방식의 상황(이소연 외, 20014)과도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상담사가 초급자로 있을 때는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 슈퍼비전의 내용을 거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지만, 경력이 쌓이면서는 점차 선택적으로 취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방기연(2006)은 상담사가 슈퍼바이저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수용한다고 보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담사가 슈퍼바이저에게서 저마다의 강점을 선별하여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이 과정에서 수퍼비전의 지속성은 전문성(황주연, 정남운, 2010)과의 연결을 시사해주고 있다.

수퍼비전을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한다는 것은 상담에 있어서 숙련됨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상담의 일이 그 만큼 몸에 배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상담이라는 일에 있어서 깊이가 생겨났음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수퍼비전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깊이가 생겨나고 수평과 수직의 만남도 가능해짐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직선이나 단면에서 비로소 입체적으로 가고 있음을 가리키기도 하고 사고나 시각에 있어서 점차 입체감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수퍼비전을 지속함으로써 수퍼비전에서 얻을 수 있는 제3자의 시선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상담사에게 있어 상담 수퍼비전의 지속은 인간의 이해를 돕는데 ‘좋은 공부’가 됨인데 사례마다 매번 다르고 문제나 증상에 의해서 가려진 복잡한 인간을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상담 경력 10년이 넘었어도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었는데 상담 수퍼비전을 지속하는 요인 중 ‘인간을 이해하게 됨’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례 개념화를 정리할 때도 녹취록을 풀거나 상담사-내담자와 수퍼바이저-수퍼바이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 눈에 보이거나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영역을 포착하고 다룬다는 것은, 깊이 있는 공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을 다루는 일이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서 더욱 그러했으리라 보게 되는 측면이다.

상담 수퍼비전의 지속은 상담사에게 있어 상담사의 자리를 유지하게끔 하는 ‘끈’과 같은 ‘연결고리’로 나타나고 있다. 의지하러 가며 때로는 불편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상담사는 수퍼비전에서 부족한 영양을 섭취하거나 소진된 에너지를 재충전하듯이 수퍼비전을 받으면서 상담사로서 저마다의 여정을 가는 것처럼 보게 된다. 상담사들이 중간중간 수퍼비전을 쉬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수퍼비전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이 ‘쉬’ 또한 지속되는 연장선으로 볼 수 있겠다. ‘쉬’으로써 상담 수퍼비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며 수퍼비전을 더 지속하게 해주고 있다.

Goodyear(2014)은 지속적인 수퍼비전을 위해서 법이나 정책의 변화를 언급하기도 하였지만, 변화가 있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 전에는 자발적인 수퍼비전이 될 것을 격려했다. 상담사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수퍼비전을 지속적으로 받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정확한 탐색을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수퍼비전의 도구인 축어록 작성으로 소요되는 시간 등이 지속적인 수퍼비전을 저해하는 요인(방기연, 2006)이 된다면 다양한 대안 모색도 필요하며 또 다른 저해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도 요구된다. 본 연구의 본문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수퍼비전을 받고 싶어도 수퍼비전에 따르는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부담이 된다는 내용도 살펴볼 수 있었다. ‘상담사의 길’이 결코 짧거나 쉽지 않은 길임을 알고 있지만 부담해야 할 경제적인 비용 또한 적지 않은 면에서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는

없는지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상담이나 슈퍼비전에 대한 열의를 가진 보다 많은 상담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 또한 필요할 것이다.

그 밖에 슈퍼비전을 지속하면서 부정적인 경험도 많이 보고되었는데 슈퍼바이저들 또한 이미 슈퍼바이저가 되었다고 안주하기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되돌아보는 기회와 교육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듣게 되었다. 이는 내담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슈퍼비전이 필요(Bernard & Goodyear, 2008; Goodyear, 2014; 손은정, 2010) 하듯이 슈퍼바이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윤리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방기연, 2012). 소수연 외(2014)는 슈퍼바이저들의 인간적 성숙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되고 슈퍼바이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받을 기회가 거의 없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패턴의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 상하 권력 관계(방기연, 2006; 방기연, 2012)를 본 연구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경험은 학습경험을 방해하고 상담사의 자율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구에 있어 제한점은 4명이라는 소수의 상담사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질적 연구는 깊이 있는 탐색(손은정, 2010)과 한 사례 한 사례가 다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일반화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수의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 종교의 유무나 종류에 따라서도 슈퍼비전의 지속성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탐구로 발전시켜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는 상담사들이 경험한 10여 년의 시간들을 인터뷰라는 명목 아래 손쉽게 전해 듣게 되는 행운을 가졌다. 소중한 시간을 기꺼이 내준 4분 상담사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하며 연구를 마무리한다.

참고문헌

- 박애선, 황미구 (2008). 한국 상담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발전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 치료, 20(4), 903-929.
- 방기연 (2006). 상담심리사의 슈퍼비전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 치료, 18(2), 233-254.
- 방기연 (2012). 상담 슈퍼비전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들. 가족과 상담, 2(1), 1-16.
- 소수연, 장성숙 (2014). 숙련된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 수행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상담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193-222.
- 손은정, 유성경, 심혜원 (2003). 상담자의 자기 성찰과 전문성 발달. 상담학연구, 4(3), 367-380.

- 손은정 (2010). 슈퍼비전에 대한 질적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3(3), 1-21.
- 이소연, 최바울, 이정선, 서영석 (2014). 슈퍼바이저가 경험한 상담수련생의 전문적 역량의 문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245-270.
- 이형국 (2017). 상담전문가 인력 현황 조사 연구 II: (사)한국정신건강상담협회의 산하 학회 상담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8(1), 45-66.
- 조은숙, 최연실, 김민경 (2015). 가족상담사의 국가자격제도를 위한 기초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3(3).
- 장유진 (2015). 상담의 전문직 정체성에 관한 질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2).
- 조용환 (2011). 질적 연구논문의 작성과 평가.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 교실*.
- 한재희 (2006). 상담패러다임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아카데미.
- 허재경, 김지현 (2009). 상담일반: 성찰 중심 슈퍼비전을 통한 상담자 발달의 변화과정 탐색 연구.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10(2), 719-740.
- Braun, & Clarke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 77-101.
- Helen H., & Judy M. (2009). Supervision. Clinical teaching made easy. *British Journal of Hospital Medicine*, 70(4).
- Seidman, I. (2015).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박혜준 · 이승연 공역. 학지사.
- Grant, J., & Schofield, M. (2007). Career-long supervision: Patterns and perspectives.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Research*, March, 7(1), 3-11.
- Rabinowitz, J. (2008). Why ongoing supervision in social casework: An historical analysis. *The Clinical Supervisor*, 5(3), 79-90.
- Ladany, N., & Bradley L. J. (2010). *Counselor supervision*(4th ed.). Taylor & Francis Group LLC. 유영권 · 안유숙 · 이정선 · 은인에 · 류경숙 · 최주희 공역. (Trans, into Korean in 2013).
- Goodyear R. K., & Bernard J. M. (2008). *Fundamentals of CLINICAL SUPERVISION*. (3th ed.). Allyn & Bacon. (Trans, into Korean in 2013).
- Goodyear R. K. (2014). Factors that limit counselor metacompetence and the suggested role of supervisors.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5(2).

투고일 : 2019. 04. 28

수정일 : 2019. 06. 15

게재확정일 : 2019. 06. 24